

창세기 열한번째 메일

아브라함이 칼을 높이 뽑아들었다.(창 22:10) 조카 ‘롯’이 ‘그돌라오멜’ 왕에게 잡혔을 때도 칼을 뽑아들고 그를 구했다.(창 14:17). 그리고 ‘할레’를 위해 자신의 표피를 직접 벤것(17:24)을 빼고는 칼을 함부로 쓰지 않았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다시 칼을 빼 든이유는 다른 사람이나 자신을 위해서도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함이다.

정말 아브라함은 그 칼로 자신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죽이려 했던 것일까? 이것이 사실이라면 무엇을 그렇게 확신했기에 이런 행동을 할수 있었을까? 만약에 아브라함이 아무런 ‘동기’도 없이 아들을 죽이기 위해 칼을 뽑아 들었다면 그는 정말 미친 사람에 불과하다.

사실 아브라함의 지금까지 행동을 살펴보면 믿음에의한 것도 있지만 믿음이 없어 보이는 행동도 많다. 단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창15:6) 라는 말씀외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 없다. 도대체 아브라함이 무엇을 구체적으로 믿었기에 사람들이 이해 할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할수 있었을까? 이것은 우리 모두의 믿음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다.

사람의 행동에는 항상 ‘동기’가 따른다. 과연 동기 없이 행동 할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보라! 사람을 살해하는 흉악한 행동에도 ‘살인동기’를 따진다. 나쁜 짓을해도 동기가 있고 좋은 일을해도 동기가 있다. 하물며 하나님을 ‘동기’ 없이 믿을수 있을까? ‘동

기' 없이 믿는 믿음이 과연 진짜 믿음일까? 무조건 믿어! 그럴수 있을까? 정말 그렇게 될까? 아무 생각 없이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정말 믿음일까? 사람들은 '믿음의 동기'를 자신이 삶에서 끊임없이 찾으려고 하는 동기도 만들려고 하지만 참 어리석은 일 아닐까? 과연 믿음의 동기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25장에서 일단 끝이난다. 그후에는 성경에서 종종 거론되기는 하지만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아들 이삭을 죽이려 했던 '믿음의 동기'에 대해서는 자세한 언급이 없다. 단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이 다시금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것을 밝혔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로 여겨 졌다'는 것은 '아브라함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하다'고 말씀한다. 그 믿음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었다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것' 이라고 밝힌다. (롬 4:25)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칼을 뽑아들고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했던 '믿음의 동기'는 죽은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믿음에 있었다. 어디서 그것을 믿게 되었을까?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은 태에서 다시 생명을 잉태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않았는가?(창 21:1,2롬 4:19)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수천년 전에 죽은 생명이 부활할것을 믿은 아브라함의 신앙은 참으로 위대하다. 당신의 믿음은 어떤가? 당신에게 일어날 영화로운 미래의 사건에 대해서 믿을 자신이 있는가?

믿음은 당신과 나를 십자가로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부활'을 향해 나아가게 한다. 이미 십자가에서 받은 용서와 사랑에 기대지 말고 '부활'의 신앙을 바라보자! 아브라함과 우리의 믿음이 의롭다고 여겨지는 분명한 이유가 바로 '부활신앙'에 있다.

